

# 中國文化에서의 上帝와 天

崔 東 熙 \*

## 目 次

머리말	1. 철기문명과 고대통일제국
I. 중국 청동기 시대의 상제·황천	III. 우리 겨레의 하늘과 중국 천의 충돌
1. 중국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1. 우리 겨레의 하늘
2. 은대와 주초(周初)의 제와 천	2. 우리의 하늘 신앙과 중국의 제천 의식
II. 진·한 시대의 천과 제	3. 민족 심정에 남은 하늘 신앙

## 머 리 말

우리 겨레가 예로부터 하늘을 믿어온 것처럼 중국 겨레는 예로부터 제(帝) 또는 천(天)을 믿어왔다. 이 때 중국에서는 제와 천은 거의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이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왔다. 우리가 하늘을 높이 받들기 위해 '님'을 뒤에 붙여 '하느님'이라 부르듯이 중국에서는 높다는 뜻을 지닌 '상'이나 크다는 뜻을 지닌 '황'을 앞에 얹어 상제(上帝), 상천(上天) 또는 황천(皇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때로는 위 두 이름을 한데 묶어 황천상제<sup>1)</sup> 또는 호천상제(昊天上帝)<sup>2)</sup>라고 하였다. 뒷날 송대의 도교 쪽에서는 신앙의 최고대상을 호천옥황상제<sup>3)</sup>라고 하였다. 우리 겨

\* 강원대 철학과 교수 철학박사

1) 嗚呼，皇天上帝，改厥元子，茲大國殷之命，... (『書經』召誥)

2) 昊天上帝，則不我遺，胡不??畏，先祖于摧. (『詩經』大雅 雲漢)

3) 송의 진종(眞宗: 998-1028)은 그무렵 도교에서 믿던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하나인

레가 오랫동안 믿어온 하늘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바로 서쪽 이웃나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제 또는 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겨레는 일찍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종교 쪽에서도 뜻밖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그저 가까운 이웃 나라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날 중국은 그 정치·경제·문화에 있어서 ‘엄청 큰 나라(大國)’로서 동아시아의 중심 세력이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무렵 동아시아는 엄청난 거리과 험하고 높은 산맥 그리고 사막 등으로 다른 문명 지역과 똑 떨어져 있었다.<sup>4)</sup> 이렇게 외부 영향을 막는 큰 울타리 안의 동아시아에서 중국 겨레가 처음으로 황하 유역에 독자적인 고대문명(청동기문명)을 일으켰다.<sup>5)</sup> 그뿐만 아니라 중국 겨레는 이 문명을 바탕으로 그뒤에도 더욱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더 나아간 다음 단계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바로 춘추시대(기원전, 770-404) 말기 쯤부터 시작되어 진대(秦代)를 거쳐 한대(漢代: 기원전 206 - 기원후 220)에 완성된 고전적인 중국 고대문화이다. 이것은 한대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흔히 한문화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그저 한대의 문화에 그치지 않는다. 저 세계적인 청동기문명을 일으킨 중국 겨레가 그 기반위에서 다시 철기문명을 발전시켜 여러 고대왕국을 세웠고<sup>6)</sup> 마침내 세계적인

---

옥황(玉皇)을 가장 높이 받들게 되었다. 임금은 마침내 1015년 1월에 옥황에게 ‘옥황대천제’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바쳤다. 그 뒤 송의 미종(徽宗)은 옥황대천제와 유교 경전(시경 등)에서 말하는 호천상제는 같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1116년 9월에 임금은 호천옥황상제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옥황에게 바치게 되었다. (『道敎』 第一卷, 平河出版社(日本), 1983, p.153)

- 4) “북쪽 중국에 있는 초기 동아시아 문명의 고장은 다른 초기 문명들의 중심지들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보기에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다른 쪽에는 아시아의 엄청난 중앙 산괴(山塊) 곧 높이 1만 피트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이 우뚝 솟았고 또 이 세계의 지붕으로부터 뻗어나간 엄청난 산맥들이 솟아 있다. 이 산괴의 북쪽에는 중앙 아시아의 넓고 넓은 사막들과 초원들이 가로놓여 있다. ... 이 산괴의 남쪽에는 서남 중국과 동남 아시아의 거칠고 험한 산맥들과 밀림들이 호히려 더 어려운 장벽으로 되어 있다.”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J.K.Fairbank, E.O.Reischauer, A.M.Craig, Houghton Mifflin, Boston, 1973, p.3)
- 5) 중국 겨레가 황하 유역에 일으킨 고대문명은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문명과 더불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대문명’을 이룬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중국 고대문명만이 같은 중국 겨레에 의하여 계승되어 더욱 발전된 중국 고전문화(漢文化)로 완성되었다
- 6) 여기서 ‘고대왕국’은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를 말한

통일제국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고대왕국들(戰國七雄)의 경쟁 과정, 그리고 통일제국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온 중국 겨레가 온 힘을 다해 세계적인 놀라운 문화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고대문화(中國古典文化)다. 이렇게 한대에 이룩된 고전문화는 온 중국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sup>7)</sup>

이러한 고전문화를 통해 중국 겨레는 진한대(秦漢代) 이후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압도적인 지배 세력으로 통하여 왔다. 정치·경제·문화를 통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놀라운 영향은 무력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침투력·동화력이 매우 미묘하였다. 중국 고전문화에서의 지배 양식이 종교적 도덕적인 의례·문자·예술·전쟁·가족 관계등을 미묘하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곧 강제적 군사적인 수단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적 문화적인 침투·교화를 앞세웠다.<sup>8)</sup> 이를테면 주변 민족이 중국 말(口語)이나 글(문자·문장·고전)을 활용하면 그들에 배에 있는 문화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교화·동화를 받게 된다. 중국 고전문화에서는 정치·경제·문화가 모두 근본적으로 황제의 통치 기능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모든 문화가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중국 고전문화가 바로 이웃에서 우리 겨레에게 오랫동안 여러 모로 영향을 미쳐 왔다.<sup>9)</sup> 이러한 중국문화의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우

---

다. 전국시대 7강대국(戰國七雄: 秦·楚·燕·韓·魏·趙·齊)은 이미 이 단계에 도달하였다. “전국시대 7강대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모두 많이 발전되었다. 지금의 산둥성 자리인 화북평원 동쪽 가장자리에 있었던 제를 예로 들어본다. 이 나라에서는 뛰어난 임금이 통일된 세금제도·법률·소금전매·중앙군대 등을 바탕으로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았다.” (*China: A New History*, J.K.Fairbank,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71)

- 7) 중국 고대문화(고전문화)는 현실적으로 한대의 국력과 놀라운 문화로서 나타나게 된다. 후한말의 인구가 6000만 쯤이고 그 영토는 이미 최근의 지도에 나타나는 영역과 비슷하였다. 산업과 기술이 철기의 이용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유교가 국가 통치의 기본정신으로 되었다
- 8) “스튜어트 슈람(Stuart R. Schram)은 결론적으로 국가는 중국 사회에서 아예 중앙 권력 그 자체였고 경건한 행위, 의례, 윤리, 교육 등은 중국에서 항상 통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위 책, p. 61)
- 9) 기원전 108년 한(漢)은 위씨조선을 쳐서 무너뜨리고 여기에 4군을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의 발전된 철기문명이 급속히 우리 겨레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 고대 통일국가 형성을 촉진하였다. 중국 고전문화를 받아들여 세운 우리 고대왕국이 곧 고구려·백제·신라다(『한국사강좌』1(고대편), 이기백·이기동, 일조각, 1983, p. 74)

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신중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 고대문명과 고전문화에 있어서의 신앙 대상(帝·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문화의 중요한 일부로서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도 우리의 신앙에 뜻밖으로 큰 영향을 미묘하게 미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글자·문장·고전(고전적인 문헌)으로 말미암은 미묘한 영향을 깊이 마음에 두고자 한다.

## I. 중국 청동기시대의 상제·황천

### 1. 중국 청동기시대(夏殷周時代)

오늘날 중국 고고학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중국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00년 쯤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500년 쯤에 펼쳐지는 중기 철기시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청동기시대는 한 1500년 동안 죽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세계적인 고대문명들이 더 일찍 청동기 문명을 발전시키기는 하였지만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명을 죽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 청동기시대는 하·은·주(夏殷周)의 세 왕조에 걸쳐있지만 이 세 국가는 하나의 공통된 중국문명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왕조에도 지배층의 특성이나 시간 흐름에 따르는 개성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정치·경제·종교같은 생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은의 후반기 이후다. 은의 19대 임금 반경(盤庚)이 서울을 상읍(商邑: 하남성 안양현 소둔촌)에 정하였다. 그 뒤 은이 주에 의해 망할 때까지 한 300년 동안 열두 임금이 여기서 중국을 지배하였다. 바로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갑골들이 20세기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다. 십몇만점이나 되는 갑골에 새겨져 있는 글자와 문장에 대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연구한다. 그동안의 연구 없적으로 근래에 은의 후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새로워졌다.

은 후반에 무엇보다 청동기가 결정적인 몫을 하였다. 은 나라에서는 청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 한쪽이 청동으로 만든 활촉 창 같은

무기이고 그 다른 쪽은 여러 가지 제사와 의식에 쓰는 예기(禮器)다. 이렇게 은의 청동기가 무엇보다 제사와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이것은 청동이라는 새로 나타난 금속이 은의 정치권력과 깊이 얽혀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기로서의 청동기는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층의 크나 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은의 정치는 여러 제사 및 그 밖의 종교적인 의례를 떠나 따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청동으로 만든 새로운 무기는 맞설 수 없는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였다. 이를테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나타났는 데 청동으로 만든 부속품 때문에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여기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 또는 칼과 청동의 활촉을 쓰는 활로 무장한 두 병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은의 지배층은 청동의 예기와 무기를 홀로 차지하였다. 따라서 청동의 생산과 청동기의 제작을 위한 기술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갖추었다. 이렇게 은은 어느 정도 사회의 계층체계를 갖춘 국가이기는 하지만 가장 강한 씨족이 크고 작은 씨족들을 거느리는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은의 중심적인 산업은 농업이지만 아직도 나무나 돌로 만든 농구를 쓰고 있어서 토지의 생산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경제단위로서 크고 작은 읍(성곽도시)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었다. 은도 스스로 “큰 읍인 상(大邑商)”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읍들이 유력한 씨족을 중심으로 뭉쳐서 수도(大邑)를 마련한 것이 곧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들을 그 정점에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은의 왕조였다. 이를테면 은도 하나의 국가이지만 여기에 여러 국가가 속하여 있다는 점에서는 은(殷)은 여러 국가의 연합체(연합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하(夏)나 주(周)도 마찬가지다. 변두리에는 은에 속하여 있지 않은 국가들도 여기저기에 있어서 은 왕조나 은에 속하여 있는 국가들은 그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였다. 또 은 왕조는 그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복종을 위해서도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은은 한 편으로는 대내적인 사회질서를 위하여 갖가지 제사와 의식을 정성껏 그리고 매우 세심하게 실행하였다. 그 정성과 세심함이 청동의 예기로 나타났다. 다른 한 편으로 은은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내적·대외적으로 자주 싸워야만 하였다. 그 강력한 무

력을 위하여 청동의 무기가 필요하였다. “나라의 대사가 제사와 전쟁에 있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전쟁이 은대에는 청동과 깊이 얽혀있었다. 정도의 다름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하나 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상과 같은 은대의 청동기문화를 통하여하은서주의 1500년에 걸친 중국 청동기시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청동기문명에도 독자적인 문자가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국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중국 문자에 있어서도 은의 후반기 이후 문자만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다. 은 수반기 문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갑골문자다. 은의 옛 서울(商邑)유적에서 십몇만 점의 갑골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타난 문자가 5000자쯤 된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서 1000자쯤 알아낼 수 있는데 아직도 그 해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갑골문자는 문자로서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보다 원시적인 상형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형문자로 이어지는 갑골문자가 주대로 이어져서 그 뒤 중국 현대 한자로 이어졌고 그 문장도 현대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고대문명의 문자와 문장이 죽 현대까지 이어진 실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국 고대문명이 그 농업·청동기·한자 등을 이어받으면서 1500년 동안 문화적인 연속성을 지녀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다른 문명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동아시아에서 중국 겨레만이 독자적인 고대문명을 통해 1500년 동안 그 세력의 기반과 범위를 다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적인 문자인 한문을 통해 중국은 동아시아 안에서 문화적인 우월성을 굳혔다. 한문으로 된 다양한 책들이 개화(教養)와 야만(華夷)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었다. 우리 겨레도 중국 고대문명의 번두리에 있는 한 오랑캐(東夷)로 일컬어져 왔다.

## 2. 은대와 주초(周初)의 제와 천

### 1) 갑골문을 통해 본 제와 천

20세기에 은대 갑골문이 해독되고 중국 고고학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중국 고대문명(청동기문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새로워졌다. 은허(殷墟)에서 엄청 많이 나온 갑골문이 해독되어 은대 후반기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적인 현상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쉽사리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갑골문자에 많이 나타난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원래 갑골문·청동기명문 같은 것에 나타난 기록만으로 종교현상을 결정적으로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갑골문자에 나타난 은대 후반기 종교현상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제(帝) 또는 상제다. 이 ‘제’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최고신’(the highest God, supreme being)<sup>10)</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 겨레는 토지신을 비롯한 여러 자연신과 매우 특색있는 많은 조상신을 높이 받들고 있었다. 이러한 애니미즘적인 많은 신과 최고신인 제와의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인격적인 신인지 아닌지도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갑골문에 나타난 제 또는 상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은대 임금들은 각가지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갑골(거북 배딱지와 소 어깨뼈)을 이용해 정성껏 점을 쳤다. 임금은 점치는 일을 맡은 관리(貞人)를 두고 있었다. 그 점의 결과에 따라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할 일을 할 수 있었다.<sup>11)</sup> 그 점을 친 내용이 갑골에 새겨져 잘 보관되었다. 이러한 갑골들이 은허(殷墟, 河南省 安陽縣 小屯)에서 대량으로 발굴되어 ‘갑골문’이라는 새로운 연

10) 여기서 말하는 최고신은 지상신(至上神)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다. 어떤 겨레나 어떤 지역에서 믿는 여러 신령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을 뜻한다. 그 겨레의 문화적인 통합단계에 따라 최고신의 통합적인 성격도 다르게 된다. 은 겨레도 여러 자연신과 많은 조상신을 믿어 오다가 그 정치적인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종교적으로도 자연과 인간을 아울러 다스리는 최고의 신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매우 발달한 많은 청동기를 남긴 은 겨레는 그만큼 정치권력도 강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에 있어서도 그만큼 강대한 신을 믿게 되어 자연과 인간을 아울러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은 겨레의 이러한 최고신이 바로 제 또는 상제라고 할 수 있다

11) 은대 임금들은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정성껏 점을 쳤다. 임금을 위해 점치는 일을 맡은 관리 또는 그 집단이 정인(貞人)이다. 이렇게 갑골을 이용하여 점을 쳐 신들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에 따라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모든 정치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은대 임금은 신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신권정치’(神權政治)라고 할 수 따라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점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정치적인 의식이다

구 자료로 되었다.

갑골문에 나타난 점친 내용 가운데 임금이 상제의 뜻을 알아내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임금이 점을 통하여 상제의 뜻을 알아보려는 내용에 의하여 상제의 신으로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가 비오게 할 것인지 곡식이 잘되게 할 것인지 알아보려는 점들이 있고, 백성에 대한 제의 뜻이 순조로운지 알아내려는 점들도 있다. 그리고 임금이 제로부터 복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거꾸로 제가 화나 고난을 내릴지 알아보려는 점들도 있다. 이렇게 임금이 점치게 한 내용을 통해 특히 은대 후반기에 숭배하고 있던 제 또는 상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곧 비·바람·천둥·번개·가뭄 같은 기상, 농사의 잘됨과 못됨, 전쟁의 이기고 짐, 백성들의 안전과 재난, 임금의 화나 복을 모두 다스린다고 믿은 가장 높은 실재(最高神)<sup>12)</sup>가 바로 제 또는 상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원전 1100년 쯤에 은을 정복한 주(周)왕조가 은이 지배하던 중원(中原, 황하의 중류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주대 초기의 금문(金文, 청동기 명문)과 문헌에 나타나 있는 제와 천이라는 이름은 다 같이 최고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천이라는 이름이 제라는 이름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 있다.<sup>13)</sup> 그리고 은대의 갑골문에는 최고신을 뜻하는 천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리하여 중국 고대종교에 있어서 제와 천의 관계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되어 왔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제(帝)’라는 글자에 대한 왕국유(王國維, 1877-1927)의 글자 기원에 따른 근대적인 새로운 해석이다. 그는 제라는 글자의 옛글자 모습은 “꽃밭침의 전체 모습을 그려냈다”<sup>14)</sup>고 하였다. 이것은 청대 금석학자인 오대징(吳大澂, 1835-1903)이 청동기 명문에

12) 호후선(胡厚宣)에 따르면 상제가 다스리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一) 風, 雲, 雷, 雨. (二) 農耕與收成. (三) 成市建築. (四) 戰爭. (五) 人間的休咎. (六) 君上的休咎.” (胡厚宣, <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 『歷史研究』, 1959, 第九期, p. 24-25)

진몽가(陳夢家)도 갑골문에 나타난 상제가 다음과 같은 영역을 다스리는 최고신이라고 하였다. “(一) 農耕與收成. (二) 戰爭. (三) 成市建築. (四) 君主之作爲.”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平, 科學, 1956, p. 571)

13) 크릴(H.G.Creel)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서주(西周)의 청동기 명문에 최고신을 뜻하는 천이 17번 나타나 있고 최고신을 나타내는 제는 4번만 나타나 있다. 『시경』(詩經)에는 최고신을 뜻하는 천이 118번, 최고신을 나타내는 제는 43번 나타나 있다. (『儒道天論發微』, 傅佩榮, 臺灣學生局, 1985, p. 11)

14) 『觀堂集林』上, 釋天, 臺北世界書局, p. 283

나타난 제의 옛글자가 꽃밭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 ‘한자 기원 풀이’에 따른 것이다. 오대징은 꽃밭침이 열매를 상징하고,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는 생물의 근원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왕국유는 꽃밭침은 식물의 근원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생물의 생식(生殖)과 번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는 결국 꽃밭침을 상징하는 ‘제’라는 글자는 인간의 조상을 뜻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라는 글자는 “생식과 번성의 뜻을 나타냄이, 조(祖)라는 글자가 생식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sup>15)</sup> 이렇게 꽃밭침을 나타내는 ‘제’가 식물의 생식과 번성의 근원을 뜻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식의 근원인 조상을 뜻한다는 것이다.

천(天)이라는 글자의 기원에 대하여서도 왕국유는 근대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천이라는 글자의 옛 글자는 본래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다.”<sup>16)</sup>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머리가 무엇보다 크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천이라는 글자는 본래 “사람의 정수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sup>17)</sup> 곽말약(郭沫若)도 “천이라는 글자는 정수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정수리가 사람의 맨 높은 곳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글자는 나아가 모든 사물의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영역”인 하늘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8)</sup> 그리고 뒤에는 마침내 ‘천’이 최고신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천이 최고신을 뜻하게 되었다면 천과 제는 똑 같은 신앙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된다.

여기서 천과 제의 관계가 하나의 문제로 떠올랐다. 과연 천과 제는 실질적으로 같은 신앙 대상을 가리켰을까? 주대 초기의 청동기 명문이나 문헌에서는 천과 제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데 천과 제를 하나로 묶어서 “황천상제”(皇天上帝, 『書經』 召誥)라 하였고 혹은 “호천상제”(昊天上帝, 『詩經』 大雅 雲漢)라 하였다. 그런데 갑골문에는 최고신을 뜻하는 천이라는 글자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왕국유의 ‘제는 은 겨레의 조상신이다’라는 해석이 더욱 주목되었다. 이리하여 “제는 본래 은 겨레의 씨족신(氏

15) 『中西哲學思想中的天道與上帝』 李社, 臺北聯經出版, 1980, p. 11 ; “示生殖繁盛之義, 與祖字象生殖者同”

16) 『觀堂集林』 上, p. 282 ; “古文天字本象人形”

17) 『青銅時代』 郭沫若, 文治出版社, 民國34年, p. 4-5

18) 위 『儒道天論發微』 p. 11

族神)이고 천은 주 겨레의 씨족신이다”<sup>19)</sup>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은대의 제는 인격적인 신일 뿐이고 자연신적인 성격이 없었는데 주대에 비로소 자연신적인 성격도 갖추어 천이라는 최고신이 제 모습을 갖추었다는 주장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갑골문이나 금문은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 기록 내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그 해독이나 해석에도 아직 풀 수 없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또 그동안 지하자료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문헌자료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점도 반성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이룩된 종교학적인 업적도 활용하여 제와 천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밝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주대(周代)에 들어와서 비로소 천이라는 관념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 영역에서처럼 주가 은의 천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곽말약(郭沫若, 1892-1978)은 상제를 가리키는 천이라는 이름이 은나라 말기에는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복사(卜辭)에 나타나는 연대는 반경(盤庚)으로부터 제을(帝乙)의 20년 쯤까지다. 그런데 이 연대에 제 또는 상제를 부르는 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최고신을 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적어도 제을(帝乙)의 20년 이후일 수밖에 없다.”<sup>20)</sup> 이렇게 곽씨가 적어도 은나라 말기에는 최고신인 상제를 천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은 주나라 초기의 청동기에 천이라는 이름이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주나라 초기의 문헌에 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은과 주의 문화적인 계승의 관계로 보아<sup>21)</sup> 주나라 초기에 갑자기 천이라는 관념(따라서 이름)이 새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주나라는 천이라는 관념도 은나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은나라 말기에는 상제가 인간계와 자연계를 아울러 다스리는 최고신으로 믿어졌다. 이렇게 되자 상제를 천이라고 부르게도 되었다. 천이라는 옛글자가 최고신을 나타내는 데 더 걸맞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제라는 옛글자는 오랫동안 조상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되어 왔다. 은나라의 제를 본래 조

19) 郭沫若, 『先秦天道觀之進展』 上海 商務, 1936, p. 7

20) 존 킨 페어뱅크, 중국사연구회 번역, 『新中國史』 서울 까치, 1994, p. 51 : 더구나 하·상·주는 그 중심을 달리하면서 공존한 것처럼 보인다. 상(은)과 주의 “계승”으로 화북은 고대 중국의 지배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21)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大東書園, 1931, 17쪽

상신이라고 보는 학자가 많다. 위에서 말한 곽말약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곽씨는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지배하는 상제도 은나라에서는 역시 조상신이라고 한다.<sup>22)</sup> 어쨌든 은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제와 조상신이 깊이 맺어져 있었다. 그러나 은나라 사회가 더욱 발전하여 중앙집권적으로 계층화함에 따라 제의 관념도 더욱 인간과 자연을 아울러 지배하는 최고신의 성격을 더해 갔다. 이래서 상제라는 이름도 생겨났고 마침내 천이라는 이름도 나타났다. 그러나 위 곽씨의 생각에 따르면 은나라에서는 상제가 천이라고 일컬어져도 이 천은 역시 은나라 조상신과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주나라에서는 그 초기부터 그 천이 조상신과는 다른 종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천의 이러한 특성은 주나라 겨레가 은나라 겨레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sup>23)</sup> 역시 중국 고대사회의 역사발전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주가 은으로부터 종교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II. 진·한 시대의 천과 제

### 1. 철기문명과 고대통일제국

대체로 1500년 동안 중국 겨레는 동질적인 청동기문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력의 범위를 넓혔다. 서주(西周; 기원전 1100-기원전 770) 때 그 세력의 영향이 이미 위수(渭水) 유역에서 산둥반도 동쪽 끝까지, 남쪽 만주에서 양자강 중류·하류 유역까지 미쳐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교통수단이 원시적이고 정치기술이 씨족제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넓은 영역을 직접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대문명의 한계를 넘어서 중국 겨레는 마침내

22) 杜而未, <天道上帝之部> 『中國古代宗教研究』臺北, 學生, 1976, 28쪽 이하. 여기서 저자는 제는 농업과 맺어져 있는 신으로서 은나라 최고신이고 천은 유목민족의 신으로서 주나라 최고신이라고 한다

23) 하(夏)와 은의 왕조가 조상신을 그토록 정성껏 받들어 왔지만 망해버린 사실을 주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배 밑에 하나 은의 남은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사 현실 속에서 천을 어느 조상신도 아닌 최고의 신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500년 쯤부터 철기문화를 발전시켰다. 무기의 재료가 청동에서 철로 바뀌게 되었고 철로 만든 농기구 특히 소가 끄는 쟁기가 중국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철기문화에 따르는 기술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중앙 집권적인 고대국가 단계를 맞이하였다. 바로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기원전 221년)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들(戰國七雄, 전국시대 7개 강대국)이 형성되어 서로 격심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통일제국을 태어나게하는 매우 생산적인 시기다. 이때의 중국 겨레의 물질적, 정신적인 발전은 동아시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전국시대 7개 강대국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2000만 쯤 되었는데 이것은 그 무렵 서(西)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온 인구와 맞먹는 인구였다. 이런 놀라운 인구를 품고 하나로 이어진 엄청 큰 땅덩이 위에서 중국 겨레는 같은 언어 문자(漢語·漢字)와 동질적인 철기문화를 통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사회적·정치적으로는 봉건적·도시국가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주왕조 밑에 있던 제후국(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여 자립적인 국가가 되기 시작한 춘추시대(春秋時代, 기원전 722-기원전 403) 말기에 많은 도시국가(제후국)들이 정치적인 기능을 잃고 한갓 도시로 변하여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제후국들 가운데 강대국들은 이미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리하여 전국시대(기원전 403-기원전 221년)에는 7개 강대국이 더욱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갖추어 더욱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마침내 기원전 221년에 진(秦)이 나머지 6국을 물리치고 온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리하여 동아시아 중심부를 한 사람의 황제가 다스리는 통일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여 놀라운 통일의 시대를 연 진제국(秦帝國, 기원전 221- 기원전 207)은 이어 한제국(漢帝國, 기원전 206-기원후 220)으로 이어졌다. 저 중국적인 고대문화가 한제국에 의하여 일단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뒷날 그 중국 고대문화를 일반적으로 한문화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문화는 그 위력 때문에 주변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 토착문화와 서로 다

양하게 융합되었다. 우리 민족도 재빨리 이 한문화를 받아들여 기원 4세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좀 뒤에는 신라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우리 겨레는 국가의 차원에서 한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테면 삼국(三國)은 국가 차원에서 유교(儒敎)와 불교(佛敎)를 이 무렵에 받아들였고 도교(道敎)도 좀 뒤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뒤 이른바 삼교(三敎)가 우리 겨레의 종교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유교와 도교의 상제(上帝)·천(天)이 우리 민족적인 하늘 신앙에 미묘한 영향을 미쳐 왔다.

### Ⅲ. 우리 겨레의 하늘과 중국 천의 충돌

#### 1. 우리 겨레의 하늘

우리 겨레는 먼 옛날부터 하늘을 믿고 하늘을 높이 받들어 왔다. 이런 전통이 그 뒤 죽 이어져 왔지만 아직 우리 글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우리 글로 직접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 겨레는 서기전 3세기 전후부터 중국의 철기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자 대체로 이 무렵부터 한자·한문도 차츰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서기전 401-221)에 하북성 쪽에서 일어난 연(燕)나라가 서기전 323년에 전국(戰國)의 칠웅(七雄·七大強國)이 되어 소왕(昭王, 서기전 311-279) 때 매우 번성하였다. 이 무렵 우리 민족은 연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중국과 접촉하여 중국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아울러 한자·한문 같은 정신문화도 차츰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 글자와 글인 한자·한문을 우리 정신문화에 활용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아들에게 물려주어 손자 우랑(右渠)에 이르렀을 때 끌어들인 한(漢)나라 유민(流民)이 매우 많아졌다. 그리고 천자(天子)를 찾아 뵙지 아니하였다. 진번(眞番) 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하였는데 이것도 가로막으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24)</sup>

이것은 서기전 2세기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위에서 ‘진번 곁에 있는 여러 나라(眞番旁衆國)’는 ‘진번 곁에 있는 진국(辰國) (眞番旁辰國)’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sup>25)</sup>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진번 곁에 있는 여러 나라(衆國) 또는 진국이 한나라 천자에게 글을 올리고자 하였다는 대목이다. 여러 나라 또는 진국이 우리 겨레가 세운 나라임에 틀림 없는데 한 나라에 글을 올리고자 하였다면 그 글(외교문)은 한문으로 쓴 글일 것이다. 이것은 서기전 2세기 쯤에 우리 겨레 가운데 한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위만조선을 쳐서 무너뜨린 한나라는 서기전 108년에 그 판권 안에 낙랑·진번·임둔의 세 군을 두었다. 이듬해(서기전 107년)에 지난날 창해군(滄海郡)을 세우려고 했던 예(濊)의 땅<sup>26)</sup>에 현도군을 두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른바 한사군이 우리 겨레가 살고 있었던 땅에 세워졌다. 이 한나라 사군의 통치는 그 지역안 뿐만 아니라 그 지역밖에까지도 사회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한자·한문도 그만큼 우리 민족 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쯤에 ‘유기(留記)’ 100권을 지었고 백제는 375년에 ‘서기(書記)’를 편찬하였고, 신라는 545년에 ‘국사(國史)’를 편찬하였다. 이들은 삼국의 최초 역사책으로서 모두 국가의 큰 사업으로 편찬된 것들이다. 아깝게도 이들은 모두 없어져 버렸지만 그 내용은 『삼국사기』 속에 대체로 전해져 있을 것이다. 우리 고대 삼국이 한문으로 이렇게 큰 편찬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 민족 사회에 한자·한문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리하여 4세기 후반 쯤부터 19세기 말까지 한자·한문이 우리 겨레의 문자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동안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고 글로는 남의 글자·글인 한자·한문을 쓰게 되었다. 곧 말로하는 언어(口語)와 글로 쓰는 언어(文語)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입말(口語, 우리말)이 글말(文語, 한문)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정의(情意)와 사상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기서는 하늘에 대한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정의(情意)와 사상을 나타내는

24) 『史記』 115권, 조선열전 제55

25)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91, p. 175

26) 『후한서』 85권,동이열전 제75 濊:武帝以其地爲滄海郡數年乃罷

데 따르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늘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늘이라는 명사도 한자로는 순수하게 나타낼 수 없다. 한자는 본래 중국어를 나타내기 위해 마련된 문자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우리 구어를 순수하게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만 하늘을 뜻하는 한자인 천(天)이라는 글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입으로는 하늘이라고 하고 마음으로도 하늘을 생각하면서 막상 글로는 천(天)이라는 한자를 써야한다. 글로 이해할 때는 천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천이라고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일찍부터 한자·한문을 독자적으로 받아들인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입으로 하는 말과 손으로 쓰는 글 사이에 미묘한 해석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동안 그 한자·한문을 통해 우리 독자적인 문화가 중국문화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당장 우리 겨레의 고유한 하늘이라는 말도 그 말과 뜻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저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그 말과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다. 이들 사회에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문으로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중국 사람이 쓴 『삼국지』에 따라 우리 고대사회에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다는 것과 그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책은 중국 진(晉)나라 초기의 진수(陳壽, 233-297)가 지은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동이전(東夷傳)은 3세기 중기까지의 우리 고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 동이전에 따르면 부여·고구려·예에서는 다같이 천에 제사지냈고, 한(마한·진한·변한)에서는 천신에 제사지냈다. 부여와 고구려는 좀 크고 통일된 국가이지만 나머지는 좀 작은 나라 또는 더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sup>27)</sup>일 것이다. 여기서 천과 천신은 우리 겨레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제사지낸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 겨레가 나라마다 가장 높이 받드는 가장 높은 신을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 따라 천 또는 천신이라고 나타냈다. 그 무렵 우리 겨레 여러 나라에서 가장 높이 받든 신을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

27) 예(濊)는 아직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좀 작은 국가이고, 마한·진한·변한은 아주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일 것이다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국 고대의 천 또는 천신과 비슷한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으로 쓴 문헌과 금석문을 통해 우리 겨레가 가장 높이 받들어 온 신을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고구려의 『유기(4세기 후반)』 백제의 『서기』(375)·신라의 『국사』(545)같은 책들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다만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김부식(1075-1151)이 완성한 『삼국사기』(50권)가 가장 오래된 우리 역사책일 뿐이다. 여기에는 위의 사서를 비롯한 삼국의 역사 문헌들이 다소 전해져 있을 것이다. 이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주몽은) 강물(淹流水)에 알려 말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가고 있는데 뒤쫓는 사람들이 따라잡으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놓았다.<sup>28)</sup>

여기서 말하는 천제(天帝)는 고구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높은 신일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천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이 쓰는 말로 그들이 믿는 가장 높은 신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이 이름을 한문으로 천제라고 나타낸 것이다. 원래 천제는 중국 사람들이 믿어온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제는 어디까지나 고구려 사람들이 쓰는 글말(文語)이다. 고구려의 글말이 천제에 해당하는 고구려 입말(곧 토박이말)이 틀림없이 있었다. 이 입말은 바로 오늘의 우리말 하느님에 해당하는 고구려 입말이다. 고구려 입말은 틀림없이 있었는데 그 입말을 남의 글인 한문을 차용하여 천제라고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입말인 천제와 중국 고대어인 천제는 본래 서로 다르다. 그들은 외형상으로는 다같이 천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이 흐려지기 쉽고 결국 중국어의 미묘한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저 언급하는데 그친다. 고구려 입말은 사람들 사이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

28) 『三國史記』 제13권, 고구려본기, 제1 시조동명성왕. 어쩌면 이 대목에는 고구려에서 4세기 후반에 지은 『留記』의 내용이 전해져 있을 지도 모른다

것을 한문을 차용하여 글로 쓸 때 그 글말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구려 장수왕 때인 414년(장수왕 2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에 다음의 대목이 보인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淹利大水)를 지났다. 임금이 나루에 다다르자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고, 바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이어놓고 거북을 떠오르게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 말에 따라 곧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올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임금은) 불류수(沸流水) 골짜기의 홀본(忽本) 땅 서쪽의 산상(山上)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그러나 (임금은) 이 세상의 왕위를 즐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천은 황룡을 보내어 내려가서 임금을 맞이하게 하였다.<sup>29)</sup>

앞에서 본 『삼국사기』에서 따온 대목과 여기에 따온 대목은 동일한 전승(傳承)을 다른 사람들이 쓴 글말이다. 주몽의 전승이 고구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한 사람이 한문으로 쓴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졌고, 다른 한 사람이 쓴 것이 광개토왕릉비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글에서 천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뒷 글에서는 황천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뒷 글에서는 천이 황룡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천’도 황천과 동일한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같은 사람도 그 글 안에서 문맥에 따라 황천 또는 천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고구려 본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 임금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 “천(天)에 제사지낼 제물로 지정한 돼지를 어찌 다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질렀다. 마침내 두 사람을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sup>30)</sup>

천에 제사지낼 제물로 쓸 돼지가 달아났으므로 임금이 시켜 뒤쫓아간 두 사람이 이것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돼지가 다시 달아나지 못하게 그 다리의 힘줄(脚筋)을 칼로 끊었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된 임금은 화가나서 그만

29) 武田幸男, 『고구려사와 동아시아』, 암파서점, 1989, p. 430 : 광개토왕비문 역문 제1면

30) 『三國史記』, 卷第30, 高句麗本紀 第1, 유리명왕 19년 8월

두 사람을 죽여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천이 고구려 임금(제2대 유리왕)이 그토록 정성껏 받드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사기 광개토왕능 비문을 통해 고구려에서 가장 높이 받드는 신이 고구려 사람에 의해 천제·황천·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래 이것들은 중국 고대의 언어인데 우리 겨레가 아직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천제·황천·천 등은 어디까지나 고구려 사람이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을 나타내는 글말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서 백제 사람이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을 천이라고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과 지에 제사지내는데 북과 피리를 썼다.”<sup>31)</sup> 이것은 백제 고이왕이 천과 지에 제사지내는데 지금과는 달리 북과 피리(鼓吹)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 말하는 천과 지는 임금이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는 신앙의 대상 곧 신이다. 그렇다면 천과 지는 동등한 신일까? 우리 겨레 따라서 백제 사람은 이들을 동등하게 믿지 않는다. 그러나 유교의 제례에 있어서는 천을 남교(서울의 남쪽 교외)에서 제사지내고 지를 북교(북쪽 교외)에서 제사지낸다. 이 천지의 제사를 교사(校祀)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백제의 천지에 대한 제사는 오히려 유교의 교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sup>32)</sup> 이 문제도 여기서는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여기서는 어쨌든 천에 제사지낸다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 백제 사람이 제사지내는 천은 바로 백제 사람이 믿던 신을 그 토박이말이 아닌 한문을 차용해 나타낸 것이다. 백제에서도 이 천을 황천·천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차용하는 한문의 세계에서는 천을 황천·천제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도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요즈음 도(道)로 말하면 임금으로서 백성 위에 있기 어렵고 의(義)로 말하면 천이 굽어살피시는 눈에 거슬러 있습니다.<sup>33)</sup>

31)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5년 정월

32) 井上秀雄, 『고대조선사서설』 영락사, 1978, p. 134-135

3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신문왕 7년 4월

이것이 687년(신문왕 7년) 4월에 신문왕이 조묘(祖廟)에 제사지냈을 때의 제문 속에 있는 한 구절이다. 여기서 천은 신라의 임금의 나라를 다스리는 구석구석을 굽어살피는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통일신라에서도 가장 높은 신을 입으로 말할 때에는 그들의 토박이말을 쓰고 글로 나타낼 때에는 그들의 글말인 천이라는 말을 썼다. 이를테면 오늘의 우리가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라고 할 때의 하늘을 신라에서 글로 쓸 때에는 천(天)이라고 썼다.

고려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을 글로 나타낼 때에 천령(天靈)·상제(上帝)·천(天) 같은 말을 썼다. 고려사의 세가(世家) 권제2(卷第二)에 “팔관(八關)은 천령과 오악(五嶽) 명산대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sup>34)</sup>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서 천령은 우리 겨레가 가장 높이 받드는 신을 말한다. 세가 권제3에는 “상제가 말씀이 없이...”<sup>35)</sup>라는 대목이 보인다. 이 상제는 우리 겨레가 믿어온 가장 높은 신을 글로 나타낼 때에 즐겨 쓰는 말이다. 세가 권제5에는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천에 호소하여 비를 빌었다”<sup>36)</sup>는 구절이 보인다. 이 천은 고려에서도 우리 겨레의 신을 글로 나타내는데 흔히 쓰던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로 중국사람이 그들의 글로 쓴 책인 삼국지의 동이전을 통해 부여·고구려·예·한(韓)에서 천 또는 천신에 제사지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 겨레가 중국으로부터 한자·한문을 받아들여 직접 쓴 책 또는 비문을 통해서 우리 겨레가 천제·황천·천령·상제·천을 가장 높은 신으로 믿고 받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저 부여·고구려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겨레가 믿고 받들었다고 하는 이들 한자말로 표현된 신은 과연 우리 토박이말(입말)로는 무엇이였을까? 그 토박이말이 변함없이 같은 말로 이어져 왔을까?

## 2. 우리의 하늘 신앙과 중국의 제천 의식

우리 겨레도 아득한 옛날부터 갖가지 믿음의 생활을 하여왔다. 따라서 그

34) 『고려사』 세가 권제2, 태조 26년 4월

35) 『고려사』 세가 권제3, 성종 5년 9월

36) 『고려사』 세가 권제5, 현종 15년 5월

동안 우리 겨레가 믿어온 대상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그들 가운데서 하늘(天, 上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하늘에 대해서도 초기 제천의례(祭天之禮)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데 그칠 것이다.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吾東方)는 그 시조가 단군입니다. 그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중국 천자가 땅을 나누어서 제후로 삼은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은 중국 요(陶唐氏)임금의 무신년(단기 원년, 서기전 2333년)이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 제천의 의례가 어느 연대에 시작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천여년이 되도록 이것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태조대왕(太祖康憲大王)이 또한 제천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천의 의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sup>37)</sup>

이것은 1416년(태종 16년) 6월에 조선 초기의 문신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태종에게 올린 상서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오동방’을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라고 풀어서 옮긴 것은 변계량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여기서 온 우리 민족이라는 입지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옛날부터 대체로 중국 동쪽에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펴온 우리 민족의 정치적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을 쓰려고 하였다. 이렇게 넓은 뜻의 우리나라는 단군을 시조로 삼고 있는데 그는 중국 태고의 요임금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계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sup>38)</sup>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본래 우리나라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제천의례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1천여년이 되도록이라고 하는데 이 연대의 계산은 어떻게 된 것일까? 위의 단군에 관한 말로 미루어 변계량은 『삼국유사』를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사(正史)인 『삼국사기』는 물론 읽었을 것이다. 이 두 역사책의 연대에 따라서 그리고 정사의 입지에서 그는 우리나라 역사의 연대를 따졌을 것이다. 위 연대에 따르면 신라의 혁거세가 서기전 57년에 임금이 되었고 고구려의 동명왕이 서기전 37년에 임금이 되었고 백제의 온조

37) 『태종실록』 권31, 16년 6월 辛酉

38) 위와 같은 책, 같은 곳

왕이 서기전 18년에 임금이 되었다.<sup>39)</sup> 이러한 세 나라 건국의 연대로부터 1416년까지를 대충 1천여 년이라고 말한 듯하다. 그는 스스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지 3천여년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1천여년이 되도록 하늘에 제사지내왔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정주학(程朱學) 계통의 유학자로서 그도 정사의 입지에 따라야만 하였고 무엇보다 그 무렵의 신진 유학자들을 의식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무렵의 신진 유학자들은 우리 전통적인 제천의 의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첫째로 이들은 정주학적인 합리주의 쪽에 서서 단군의 이야기나 제천의 의례 같은 것을 미신에 속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나라 또는 국제간의 제도 쪽으로 보아 조선 조정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변계량은 위의 상서에서 “나라 제도가 예문에 따라서 교사(郊祀)<sup>40)</sup>를 폐지한 지 지금 몇 해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상서에 따르면 태종 10년대(1410년대) 초에 예문에 따라서 교사가 폐지되어 있었다. 여기서 예문이란 예에 관한 경전(주례·의례·예기 등)에 있는 명문(明文)을 말한다. 위에서 조선 조정이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다는 주장과 관계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지내며 대부(大夫)는 오사(五祀)에 제사지낸다.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지내고 ... 제후는 그 지역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sup>41)</sup>

이러한 예문에 따라 조선 조정이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계량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로 우리나라 시조(단군)는 하늘에서 천명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천여년 동안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것이다. 둘째로 천자만이 천지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일상(日常)의 예절이고 하늘에 비를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같은 것은 비상(非常)의 예절이므로 제후일지라도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이

39) 『삼국사기』의 各本記, 『삼국유사』의 王曆

40) 임금이 서울 밖(郊外)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 郊祭. 郊之祭也, 迎長日之至也. 大報天而主日也. 兆於南郊, 就陽位也. (『禮記』 권제11 特郊牲 제11) .

41) 『예기』 권제5 王制 제5

그 당시에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민족적인 양심과 어떤 민족적인 종교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변계량에 따르면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명나라와 그 시조를 달리하는 그리고 그 전통을 달리하는 나라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조선이 명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은 뒤에도 조선은 역시 명나라 해외의 나라(해외지방)라고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명나라 태조의 조서<sup>42)</sup>를 근거로하여 자기의 신념을 뒷받침하려고 애썼다.

고황제(명태조, 주원장, 1328-1398)가 ... 공민왕(현릉)이 귀부(歸附)하는 정성을 기쁘게 여겨 특히 자상한 소서(詔書)를 내려 우리 조정의 일을 두루 말하기를 마치 손바닥 가리키는 듯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일도 꼭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데도 의식은 본속(우리 전통적 풍습)에 따르고 법도는 옛 법규를 지킬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뜻은 아마도 해외의 나라로써 처음에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제천의 예의가 매우 오래 이어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듯합니다.<sup>43)</sup>

여기서 변계량은 은근히 우리 민족적인 종교 전통인, 제천의 의례 자체를 살리고자 생각하고 있다. 그저 가뭄 때문에 비를 빌기 위해 하늘에 지사 지내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시조가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천의 의례가 매우 오래 이어졌다고 할 때 이것은 그저 가뭄에 비를 빌기 위한 제천의례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진나라 초기에 진수(진수, 233-297)가 지은 『삼국지』의 동이전을 통해 부여·고구려·예·마한이 다같이 정기적으로 한 해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1천여 년이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제천의례를 주 이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제천의례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의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제천의례를 되살릴 수 있고 또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변계량의 숨은 뜻일 것이다.

42) 1370년(공민왕 19년) 5월에 명나라 태조는 고려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하고  
 儀制의 운영은 本俗에 따를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소서를 내렸다. (『고려사절  
 요』 권29, 공민왕49년 5월)

43) 『태종실록』 권31, 16년 6월 辛酉

이제 우리는 변계량이 말하는 일상의 예절(禮之常)과 비상(處非常)의 예절(禮之變)을 좀더 생각해보기로 하자. 먼저 일상의 예절은 정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이고 비상(處非常)의 예절은 예사스럽지 않은 변고에 대처하기 위한 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일상적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이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상적 예절이냐 아니면 비일상적인 예절이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일상적인 것을 윤리적(自然的) 의례라 하고 비일상적인 것을 종교적(超自然的) 의례라 할 수 있다. 변계량에 따르면 비를 빌기 위한 제천의 의례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의례다. 따라서 중국의 예문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에서 “천자만이 천지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윤리적 의례 곧 통치자의 정치적 의식이다. 이 의식과는 다른 어떤 종교적 의례로써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중국의 해외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안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도교에서 그 종교적 의례로써 상제에 제사지낼 수 있다. 이러한 의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변계량은 정성을 다해 임금(임금)이 원단(圓壇)에서 하늘에 제사지내야 한다고 아뢰었던 것이다. 마침내 태종은 변계량에게 제천문(祭天文)을 짓게하여 중신을 보내어 원단(남교)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419년(세종 원년)에도 날씨가 가물어 세종은 5월 19(五月 癸亥)일에 예조에 명령하여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그 뒤에도 비가 오지 않아 좋다는 갖가지 기우제를 지내게 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6월 7일(六月 庚辰)에 변계량이 임금에게 원단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를 회복하도록 요청하였다.

임금은 예절을 벗어난 의례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계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후는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예절은 본래 그렇습니다. 성인이 내린 가르침도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명나라 주탁(周倬)이 사신으로 와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대들의 나라에서 하늘에 제사지낸다는데 정말 그러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주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로써 인사(人事)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그대들의 나라가 손님 대접을 위한 잔치를 차리고 우

리 조정의 제상을 청한다면 아마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자같은 정성을 다해 청하여도 그 잔치를 위해 어찌 그대들 나라에 내려오 시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우리 조정은 제천의 의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써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 조정들이 지난 2천년동안 서로 이어받아 하늘에 제사지내 왔으므로 지금 폐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땅이 사방 몇 천리로서 옛날의 1백리 제후 나라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임금은 “제후가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다는 것이 예문에 버젓이 있는데 어찌 땅 사방이 몇 천리라하여 천자의 예절을 함부로 행할것인가?”라고 하였다. 계량은 다시 이렇게 아뢰었다. “저는 제천이 비록 제후의 예절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수가(沂水之邊)에 하늘에 제사지내 비를 비는 곳이 있으므로 이 의례는 옛날에도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제사지낸다면 안되지만 일이 생겨서 지내는 것은 역시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가뭄을 겪고 있어서 또한 거리낄 것이 없으므로, 제사지내기를 어찌 꺼리겠습니까?” 이에 임금은 과연 그렇다고하여 제천의 날짜를 받도록 명령하였다.<sup>44)</sup>

여기서 명나라에서 주탁이 사신으로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1418년(태종 18년) 7월 1일(七月 己酉) 이후일 것이다. 이날 태종은 좌의정 박은(朴堧)을 보내어 원단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 뒤에 주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다고 그럴 듯한 비유로써 타일렀다. 이러한 일 때문에 세종은 갖가지 기우제를 지내게 하면서 원단에서의 제천만은 굳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변계량은 세종에게 역시 두가지 근거를 들어 원단에서의 제천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었다. 첫째로 주탁이 말하는 제천은 중국 예문에 따르는 중국 통치에 관한 윤리적 의례이고 우리나라의 제천은 우리의 오랜 전통에 따르는 우리 민족적인 종교적 의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로 예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민간의 종교적 의례로서의 제천이 중국에 (예컨대 沂수가에)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세종은 일단 받아들여 마침내 원단에서 비를 위해 하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44) 『세종실록』 권4, 원년 6월 庚辰

### 3. 민족 심정에 남은 하늘 신앙

세종은 1427년(세종 9년) 6월 14일에도 원단에서 하늘에 기우제를 내게 했는데 그 제문을 변계량에게 쓰게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세종은 더 이상 원단의 제천을 행하지 않은 듯하다. 1430년에 변계량은 세상을 떠났다. 1439년 7월 5일에 정척(鄭陟, 1390-1475)이 임금에 글을 올려 원단에서 하늘에 제사지내어 단비를 빌도록 간청했으나 세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 1443년(세종 25년) 7월 12일 예조에서 임금에게 하늘에 제사지내어 비를 빌 것을 안타까이 아뢰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에 대해 “원단의 제사라면 따르지 않겠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비를 비는 일이라면 모두 그대들의 말에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듬해 7월에도 예조에서 하늘에 제사지내어 비를 빌 것을 간청했으나 세종은 “이와 같은 예절에 벗어난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잘라 말하였다. 이렇게 세종은 원단에서의 제천은 예절에 벗어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세종의 신념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1449년(세종 31년) 7월 4일에 영의정 황희(黃喜, 1363-1452)와 세종이 원단의 제천에 관해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가뭄의 재난이 금년에 더욱 심하여 나라에서 신마다 비를 빌지 않은 신이 없습니다. 다만 원단의 제천만을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사 예전에 규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행한다고 하면 예절에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다급해서 행한다면 어찌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자가 병이 나자 자로가 빌기를 청하여 기도하는 글 가운데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빈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나는 빈지 오래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된다고 물리치지는 않습니다. 부디 원단에 빌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임금은 이에 대해 “원단에 제사지내도 반드시 비를 얻을 수는 없다. 제사지내서 반드시 비가 온다면 어찌 예절을 벗어난 실수를 헤아리겠는가? 비를 얻지 못한다면 헛되이 예절에 벗어났다는 이름만 얻게 되니 나라 일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데 소격전(昭格殿)은 이단(異端)의 일이지는 하지만 또한 하

늘에 제사지낸다. 동궁(東宮)을 시켜 거기서 친히 빌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하였다.

황희가 86세의 늙은 몸으로 세종에게 원단에서 하늘에 비를 빌 것을 간청하였다. 그도 두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도 원단의 제천을 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제사의 예전에 규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사정 때문에 행하는 제천이라면 제후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라의 제사 예전에 규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관점이 주목된다. 변계량이 말한 일상의 예절과 비상의 예절의 구별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자가 병났을 때 자로가 한 말을 보기로 들어서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하늘에 비는 민간의 종교적 의례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황희의 이러한 두가지 근거는 위에서 본 변계량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종의 이해와 태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비를 빌기 위한 제천은 원단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세종은 중국 예문에 규정되어 있는 원단의 제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명나라와 조선의 현실적인 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원단에서는 하늘에 제사질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듯하다. 중국 예문에 따르는 제천과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천이 서로 다른데 굳이 예문에 규정되어 있는 제천의 제단인 원단에서 우리 전통적 제천을 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선 명나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적인 종교적 의례를 중국의 정치적인 윤리적 의례와 구별하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갖가지 문물이 밝아진 세종의 연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세종의 속뜻인 듯하다.

둘째로 원단 아닌 다른 곳이라면 우리 전통적인 제천의 의례를 위해 성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종이 그만큼 우리 민족적인 종교적 의례에 대해 이해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하늘을 믿어왔지만 그 제천의 의례나 제단이 뚜렷이 규정된 것이 없었다. 저 유교·불교·도교에 밀리고 눌러서 종교체제를 갖추지 못한채 자연적·민족적 신앙으로써 소박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심정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서 가뭄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덧 온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지금 세종은 그동안 뚜렷한 제단도 갖추지 못한 우리 제천의 의례를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 원단 아닌 다른 마땅한 곳을 찾고 있다. 이리하여 세종의 마음에 떠오른 곳이 소격전(昭格殿)이다. 여기서 도교의 종교의식(곧 齋醮儀式)을 행하는데 여기서 “또한 하늘에 제사지내기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종은 여기서 동궁으로 하여금 친히 비를 비는 제천의 의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였다.

소격전에는 도교에서 받드는 수백의 높고 낮은 갖가지 신들이 모셔져 있다. 그 가운데 최고신인 옥황상제가 있는데 여기에 도교의 독특한 의식에 따라 제사지냈다. 이것을 세종은 “하늘에 제사지낸다”<sup>45)</sup>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에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옥황상제에 대한 도교의 의례와 우리 민족의 제천의례가 서로 비슷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서로 같다는 뜻일까? 저 원단의 제천의례가 윤리적(정치적) 의례인데 대해 다 같이 종교적 의례로서 서로 비슷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적인 제천의 의례를 소격전에서 행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교적 의례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족적 종교의례를 더욱 행하기 어렵다. 종교에 따라서 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이 막상 우리 민족적인 제천의례를 소격전에서 행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의정부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기 때문이다.

소격전에서 동궁이 친히 제례를 행한 일은 지난 날 아직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이 이미 대신하여 행하였으므로 어찌 친히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sup>46)</sup>

이에 대해 세종도 “그것은 옳은 말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은 비를 비는 우리 전통적 제천의 의례를 소격전에서 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45) 『慵齋叢書』 大東野乘

46) 『세종실록』 권125, 31년 7월 任午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제사 예전상으로 소격전에서는 도교의 독자적인 의례만 행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임금 또는 동궁이 친히 행할 수 없는 의례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교식 의식에 따른 옥황상제에 대한 의례는 예전의 규정대로 대신이 이미 대행하였다고 아뢰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종도 우리 전통적 제천의 의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나라 차원에서는 이미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조선은 넓고 깊게 유교적인 문물이 갖추어져 갔고 이것을 운용하는 신진유가들이 달혀진 유교정신으로 무장되어 갔기 때문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적인 제천의 의례가 유교적으로 정비된 조선의 예전에 따라 나라 차원에서는 아주 설 땅을 잃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제천의례가 아주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 겨레의 크고 작은 지역집단에서 갖가지 전통적 형식에 따라 예나 다름없이 하늘에 제사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전국 마을 단위의 동신제(洞神祭)에서 직접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도 있었다. 또는 동신이 곧 산신(山神)인 마을이 매우 많은데 우리 겨레의 산신은 본래 하늘에서 산에 내려오는 신으로서 결국은 하늘(天神)이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혹은 전국적으로 자주 지내는 크고 작은 기우제·기청제(祈晴祭)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 적지 않다. 이와같이 하늘을 믿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우리 전통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민족 신앙 혹은 민족종교로서 우리 겨레 속에 깊이 그리고 널리 뿌리를 박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앙은 우리 겨레의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우리의 종교의식의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오늘의 종교적 형식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47) 熊谷治, 『동아시아의 민속과 제의』 웅산각출판, 1984, p. 206-207